

해방 이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 분석*

나중현*

〈차 례〉

1. 머리말
2. 해방 이후~제7차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3. 2000년대 검정화 이후 한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4.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조선 후기 사상사'에 관한 서술이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특히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에 주목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해방 이후부터 제7차 교육과정 시기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설명하려는 인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기에는 성리학의 공리공담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서술하였던 것에 비하여, 후기로 갈수록 조선의 통치 체제 및 통치 집단과 성리학의 관계가 보다 집중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로 파악하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교과서 검정화 이후에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통합하여 서술하면서, 전근대사의 서술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에 따라 조선시대 및 조선 후기 사상사에 대한 서술도 지속적으로 축약되었다. 교육과정을 검토하면,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는 약화된 듯 보인다. 그러나 현재 통용되는 9종의 교과서 중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를 벗어나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서술하는 교과서는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은 역사학계에서의 조선 후기 사상사 연구 현황과 역사교육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성리학과 실학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교과서의 구도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과, 현행 검정 교과서 체계에서도 실제 관점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 등이 그것이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조선 후기 사상사를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BK조교수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화는 학계와 역사교육 현장에서의 풍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주제에] 사상사, 성리학, 실학, 조선후기사, 교과서

1. 머리말

조선 후기는 근대로 발전하여 가는 한국사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로 인식되었다. 조선후기사 연구를 되돌아 볼 때, 조선 후기의 정치·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로의 발전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집중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상사 서술에서는 ‘실학’이 근대로의 가능성을 가진 학문으로 인식되었다. 일찍이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국학자들에게서도 실학에 관한 주목을 확인할 수 있고, 해방 이후에도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유흥원이나 이익 등 실학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¹⁾ 1960년 4·19와 같은 사회적 변혁을 거치면서 1970년대에 이르면, 중세에서 근대로 나아가던 조선의 사회경제를 사상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실학을 인식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²⁾ 이러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선 후기에 들어 중세적 사상인 성리학이 한계를 드러내고, 새로운 근대지향적 학문인 실학이 등장하여 당대의 사회적 변동에 조응하였다는 구도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³⁾를 통해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서술하는 인식이 구축된 것이다.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는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설명하는 주요 구도로 활용되었다. 본문에서 더욱 검토되겠지만, 교과서의

1) 대표적으로는 洪以燮, 『朝鮮科學史』, 정음사, 1946; 千寬宇, 「儒溪 柳馨遠 研究-實學 發生에서 본 李朝 社會의 一斷面-」, 『歷史學報』 2·3, 1952·1953 등.

2) 정창렬, 「실학사상 연구의 쟁점과 과제」, 1983(『정창렬 저작집: 민중의 성장과 실학』, 선인, 2014에 재수록)

3) 이 글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는 성리학을 중세적 학문, 실학을 근대지향적 학문으로 규정하고 후자에 의한 전자의 극복을 통해 조선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조망하고자 하였던 사상사 연구 경향을 통칭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조선시대 사상사 서술에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하는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에 대한 연구 사 검토는 허태용에 의해 시도된 바 있다(허태용, 「성리학 대 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개」, 『한국사상사학』 67, 2021).

이러한 구도는 오랜 교육과정의 변화를 거치면서도 변화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수십년 동안 교육 현장에서 활용됨에 따라, 조선 후기 사회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성리학을 부정적으로, 새로운 한국사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실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한국 사회에 널리 자리 잡게 되었다.

한편, 역사학계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실학을 근대지향적 학문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⁴⁾ 실학의 근대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역사학계의 주류를 차지하지는 못하였지만 꾸준히 제기되었다. 1980년대를 경유하며, 성리학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 성리학과 실학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던 기존 견해를 벗어나려는 경향도 등장하였다.⁵⁾ 이 경향에서는 성리학을 조선 후기의 문화 부흥을 이끌었던 시대 정신으로서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특히 서인 계열에서 북학론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주목하였다. 실학의 개념뿐 아니라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를 통한 조선 후기 사상사 이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간 실학 연구를 이끌어왔던 근현대 지성사를 되돌아보면서 '담론'으로서의 실학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제출되었다.⁶⁾

실학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교과서의 실학 관련 서술에 대한 검토로도 이어졌다. 2014년에는 당시 활용되고 있던 역사 관련 교과서들의 실학 서술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진행되었으며,⁷⁾ 2022년에도 그동안 사용된 한국사 교과서의 실학 서술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⁸⁾ 이러한 교과서에 대한 검

4) 대표적으로는 韓洵勳, 「李朝 實學의 개념에 대하여」, 『震檀學報』 19, 1958.

5) 대표적으로는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최완수 『眞景時代』 1·2, 돌베개, 1998;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1995 등.

6) 노관범,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론-실학 인식의 방향 전환을 위하여」, 『역사비평』 122, 2018; 노관범, 「한국 통사로 보는 '실학'의 지식사 시론」, 『한국문화』 88, 2019; 정호훈, 「조선후기 실학 연구의 추이와 성과-해방 후 한국에서의 실학 연구, 방법과 문제의식」, 『한국사연구』 184, 2019; 허태용, 앞의 글, 2021.

7) 강승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실학' 서술」, 『역사와 실학』 54, 2014; 방대광, 「중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실학' 서술」, 『역사와 실학』 54, 2014; 황은희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실학' 서술」, 『역사와 실학』 54, 2014; 서인원 「동아시아 교과서의 '실학' 서술 분석」, 『역사와 실학』 55, 2014.

8) 신형수, 「한국 실학과 미래 세대 교육」, 『역사와 교육』 35, 2022; 송치중, 「교수요목기~제2차 교육과정기 한국사 교과서 실학 서술」, 『역사와 교육』 35, 2022; 조건, 「제3~6차 교육과정기 『국사』

토는 실학 개념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역사 교육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실학 관련 서술에 대한 검토는 수차례 이루어진 반면, 교과서의 성리학 관련 서술에 대한 고찰은 찾기 어려운 형편이다. 그에 따라 조선 후기 사상사를 바라보았던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사 교과서의 변화 속에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22교육과정이 마련된 지금, 현행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설명하는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충분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2000년대 한국사 교과서 검정화를 하나의 계기로 파악하여,⁹⁾ 미군정기에서부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를 첫 번째 시기로, 2009 교육과정 이후를 두 번째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미군정기에서부터 제1차~제7차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조선 후기 사상사 서술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확립·강화되었던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이어 3장에서는 교과서 검정화 이후 조선 후기 사상사 서술의 변화를 2009교육과정과 2015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2015교육과정(2018 개정)에 따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9종의 교과서에서 조선 후기 사상사의 구도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재 통용되는 한국사 교과서에서의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에 관한 인식이 어떠한지, 그 개선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교과서의 실학 서술과 특징], 『역사와 교육』 35, 2022; 서인원, 「제7차 교육과정기-2018 개정 교육과정기 한국사 교과서의 실학 서술 - 고등학교 한국사를 중심으로 -」, 『역사와 교육』 35, 2022; 박진동,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살펴보는 실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 『역사와 교육』 35, 2022.

9) 한국사 교과서의 전개 과정에서 2000년대 교과서 검정화가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는 인식은 2015년의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통해서 더욱 잘 드러났다. 당시 국정화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역사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국정화 필요성의 근거로 삼았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다양한 관점의 역사 서술을 옹호하며 국정화로 인해 국가에 의한 획일된 역사관이 강제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는 2000년대 교과서 검정화가 한국사 교과서 서술에서 다양한 관점의 역사 서술을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2. 해방 이후~제7차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해방 직후의 한국사 교과서로는 『국사교본』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중 중등용 교과용으로 사용된 중등 『국사교본』은 주지하다시피 미군정의 요구에 의해 1946년 진단학회에서 집필한 것으로서, 당시의 역사 인식과 한국사 교육에 관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주요 자료이다. 중등 『국사교본』에서 조선시대사는 ‘근세(이씨조선)’로 분류되었고, 다시 ‘전기(태조~명종 말)’와 ‘중기(선조 원년~경종 말년)’, 그리고 ‘후기(영조 원년~순종 말)’의 세 시기로 나뉘어 서술되었다. 조선 후기 사상사와 관련하여서는 ‘중기’의 ‘제5장, 새 시설과 새 문화의 싹틔움’에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우선 조선 학계의 지배적 사상이었던 성리학에 대한 『국사교본』의 인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전기’의 ‘제3장, 사회와 사상계의 동향’을 검토해 볼 것이다.

【李滉과 李珥】 이 중에도 李滉과 李珥는 그 學問과 人格으로 보아 東方에 典型的 儒者이었다. 그러나 이들의 대개는 편벽되어 朱子學을 鐵則으로 삼아 이와 反對되는 다른 學問에 對하여는 寬容性을 가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半島의 學界를 朱子學으로 單一化하여 多彩 多樣할 빛을 發치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매우 遺憾된 點이었다.¹⁰⁾

여기에서는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한 조선 학자들의 성리학 이해 심화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주자학을 철칙으로 삼아 다른 학문에 대한 관용성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로 인해 조선의 학계에서는 다양한 학문이 지라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앞서 연산군~명종대의 사회에 대해서 서술한 후, 사회로 인해 사류들의 기운이 저상되어 학문에만 침잠하였고, 학문 경향 역시 사색과 이론에 경도되어 성리 연구를 근간으로 하게 되었다고 서술한 것을 보면,¹¹⁾ 성리학은 공리공답에 가깝고 현실

10) 震植學會, 『國史教本』, 軍政廳文教部, 1946, 102쪽.

11) 위의 책, 101~102쪽.

과 유리된 학문이라는 전형적인 인식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성리학의 이론적 모색을 중심으로 한 학문 풍토의 변화는 학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 이는 ‘중기’ 서술에서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국사교본』의 근세 중기 ‘제5장, 새 시설과 새 문화의 싹틔’에서는 먼저 군제의 재편, 대동법의 시행, 통화의 실시와 같은 17세기의 현실적 조건의 변화에 대해 강조한 후,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였던 김육을 ‘문명의 선도자’로 소개하였다. 이어 서양 문물과의 접촉을 통한 세계관의 확대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의식의 확대는 곧 새로운 사상의 모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제5장의 마지막 절에서는 왜란과 호란을 겪고 외래문물의 자극을 받은 후로 비로소 눈을 떠서 주자학에만 경도되었던 학풍을 탈피하고 새로운 학문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공리공담의 죽은 학문보다 실제에 이로운 이용후생의 학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직시하고, 우리 고유의 문학과 역사에 대한 연구 의지가 일어나 학풍이 변화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으며, 이수광과 한백겸, 김육, 유형원, 박세당, 이익 등 이른바 실학자들을 주목하였다.¹²⁾

근세 중기 학풍의 변화는 영조와 정조 시대의 문화 부흥과 조응하여, 청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박지원 등 북학론과와 청 고증학의 영향을 받은 김정희와 같은 학자의 등장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¹³⁾ 『국사교본』 단계에서 이미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를 통해 조선 후기 사상사를 이해하고 또한 교육하려 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공리공담의 성리학과 실용적 실학의 대립 구도에서 조선 후기 사상사를 이해하였던 시각은 『국사교본』과 비슷한 시기의 또다른 교과서인 『우리나라의 생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양란 이전의 학자들은 주자학에만 경도되어 국가 사회 전반에 걸쳐 폐단이 매우 컸으나, 양란을 겪고 외국 문물에 자극을 받아 새로운 실지 실용의 학문이 일어났으며, 영조와 정조의 학문 장려와 아울러 마침내 학풍

12) 위의 책, 120~128쪽.

13) 위의 책, 133~135쪽.

이 일변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¹⁴⁾ 성리학을 부정적으로 파악하고 그를 탈피한 새로운 학풍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이러한 시각은 앞서 살펴본 『국사교본』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제1차 교육과정(1954~1963)에서 사용된 교과서에서는 조선시대를 전기(1392~1592), 중기(1593~1863), 후기(1864~1910)의 세 시기로 분류하고, 전기는 주자학, 중기는 실학, 후기는 서양 학문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사상을 서술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살펴본 미군정기의 교과서들이 공리공당이라 지칭한 것에 비해서, 조선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봉당 형성기에 관한 서술에서 '학문으로서의 주자학은 권력 행사의 도구로, 유학도의 근거요, 또 정쟁의 근거'¹⁵⁾라고 평가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의 주류 사상이었던 성리학의 역사적 의의를 상세히 소개하는 것과는 별개로 성리학의 정치·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리학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결국 실학의 성격과 의의를 설명하면서 사회개혁론으로서의 성격을 부각시킨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¹⁶⁾ 이러한 점을 보아, 제1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에서도 성리학을 극복하고 실학을 통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는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하겠다.

제2차 교육과정(1963~1973) 교과서에서는 이황과 이이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의 철학적 이해 심화에 대해서는 우주의 본체와 인간의 본성을 캐내는데 힘썼다면 일부 긍정적으로 보이는 평가를 하면서도,¹⁷⁾ 성리학의 정치·사회적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조선 후기의 실학을 통해 학술적 변화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기조가 유지되었다. 계서화된 양반 사회가 내포하는 모순이 주자학의 대의명분론과 결부되면서 사회와 당쟁으로 이어졌으며, 예론이 당쟁에 악용되면서 당쟁은 곧 국난의 위협을 주기에 이

14) 申爽鎬, 『우리나라의 생활』, 東邦文化社, 1948, 148~149쪽.

15) 홍이섭, 『우리나라 문화사 <고등 국사>』, 정음사, 1957, 117쪽.

16) 위의 책, 137~140쪽.

17) 문교부, 『국사』, 대한교과서, 1968, 98~99쪽.

르렀다고 평가되었다.¹⁸⁾ 조선 성리학은 이황과 이이 단계에서 심오한 철학적 세계로 접어들었으나, 특히 현종과 숙종 때부터 부질없는 대의명분론에 집착하여 현실과 유리된 공리 공론에 치우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식인들의 반발과 학문적 반성은 실학 성립의 학문적 배경을 이루었다. 양란 이후 혼란한 사회상이 실학 성립의 사회적 배경으로, 서양 문물의 접촉으로 인한 세계 의식의 확대가 학문적 반성의 외적 기반으로 지적되었다.¹⁹⁾ 이용후생, 경세치용, 실사구시라는 실학의 주요 갈래가 선명하게 제시된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²⁰⁾

제3차 교육과정(1973~1981)에서는 성리학의 발전을 선도한 집단으로 사림에 주목하여, 사림의 성장과 사회, 그리고 당쟁을 중심으로 조선 초 정치사를 서술하였고,²¹⁾ 이들 사림의 문화 발전의 결과로서 16세기 성리 철학의 융성을 지목하였다. 당시의 국내외적 조건이 철학적 사색에 침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철학사에서 특기할 만한 심오한 철학적 이론과 논쟁이 등장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파악한 것이다.²²⁾ 그 외에도 사림의 문화가 이끌어낸 다양한 현상들을 소개하였다. 사림의 문화는 16세기까지는 긍정적 의의를 가진 것이었으나, 양란을 거치며 이러한 긍정적 모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성리학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사회 개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림의 주장은 공감대를 잃게 되었던 반면, 일부 선각자들은 부국 강병과 민생 안정을 달성하여 안으로는 분열된 사회를 재통합하고 밖으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려는 문화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니, 특히 학술 영역에서 나타난 문화 운동이 바로 실학이라 파악하였다. 실학의 갈래로는 유형원에서 이익, 그리고 정약용으로 이어지는 농업 중심의 개혁 사상과, 유수원과 홍대용, 박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 사상이 주목되었다.²³⁾

18) 위의 책, 96~99쪽.

19) 위의 책, 117쪽.

20) 위의 책, 118쪽.

21) 문교부, 『고등학교 국사』, 대한교과서, 1979, 148~151쪽.

22) 위의 책, 155~157쪽.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정치·사상 집단으로서 사림에 주목하고 그들의 학술을 성리학과 명확하게 연결하여 서술하였다는 점이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 교과서들에서 주로 '주자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여기에서는 '성리학'이라는 용어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조선을 이끌어간 이념으로서 성리학의 긍정적 의의에 대해서도 충분히 서술하였으나, 조선 후기 사상사 서술에서는 실학의 반성리학적 성격에 주목하고 나중에 등장할 근대사상과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제3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1982~1989) 교과서에서는 양란을 기점으로 조선시대사를 근세와 근대로 나누어 구성하였다는 점이 주요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구성 방식에서는 실학의 발달을 통해 조선이 근대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교과서의 조선 후기 사상사 서술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지속적으로 선명해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성리학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먼저 고려 말 신흥사대부 중에서 조선 왕조의 개창에 동의하지 않고 향촌에 내려가 학문에 주력하였던 이들에게서 사림과의 연원을 찾았다. 사림과는 16세기 이후 사상계를 성리학 중심으로 이끌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리와 도덕을 지나치게 숭상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 기울게 되어, 민족에 대한 자각이 강하고 부국 강병을 열망하였던 대중의 심리와는 맞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²⁴⁾ 또한 성리학적 이상을 추구하는 가운데 국방 강화와 대외 정책에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강조하여,²⁵⁾ 성리학의 공리공담적 성격에 대한 지적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광범위한 사회 변동 속에서 성리학은 사회 지도 이념으로서의 한계를 노출하게 되었고, 실학은 이에 대한 반성으로 새로운 문화

23) 위의 책, 194~201쪽.

24) 문교부, 『고등학교 국사』(상), 대한교과서, 1982, 133~134; 155~161쪽.

25) 위의 책, 166~167쪽.

운동으로서 등장하였다고 소개되었다. 실학에 관한 내용은 그 갈래를 농업 중심의 개혁 사상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 사상으로 나눈 것에서부터 구체적인 서술에 이르기까지 제3차 교육과정 교과서와 대동소이하다.²⁶⁾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과 실학을 근대로 분류함으로써 실학이 가진 근대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드러내었다는 점에서 제4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제5차 교육과정(1990~1992) 교과서에서도 제4차 교육과정에서의 서술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양란을 전후로 하여 조선 전기를 근세, 조선 후기를 근대로 분류하였으며, 조선 전기의 사상을 사림과 성리학을 위주로 조선 후기의 사상을 실학자와 실학을 위주로 서술한 것 또한 거의 유사하다. 다만, 각 단원이 한 시대 내에서 정치·경제·문화 등 분야별 구성으로 재편되면서 내용의 증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속에서도 지배층이 그러한 움직임을 외면하고 성리학적 질서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내용이 보장되었고, 그 속에서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해 지배 계층의 정통성과 봉건적 신분 질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성리학적 질서가 강조되면서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도 심화되었지만, 교조화된 성리학에 반발하는 학문적 흐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²⁷⁾

실학에 관하여서도 이전 4차 교육과정까지의 기초를 유지하면서도 실학의 성격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서술이 이루어졌다. 4차 교육과정까지 실학 사상을 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설명했던 것과 달리, 5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에 직면하여,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 개혁 사상’이라 정의하며 사회 개혁론으로서의 성격을 한층 강조하였다. 실학 사상 등장 of 요인을 통치 질서의 와해, 성리학에 대한 비판, 경제적 변화와 발전, 신분 변동, 서학의 전래, 청나라 고증학의 영향 등 여섯 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한 것도 주목해 볼 수 있다.²⁸⁾

26) 문교부, 『고등학교 국사』(하), 대한교과서, 1982, 25~33쪽.

27) 문교부, 『고등학교 국사』(하), 대한교과서, 1990, 50~54쪽.

제5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는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대한 성리학과 실학의 대응이 판이하게 달랐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면서,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로 바라보는 인식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도에서 성리학을 부정적으로 실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식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대하여 기존 지배층이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던 양상을 소개하면서, 역설적으로 성리학의 지배 방식에 대한 서술에 이전보다 많은 분량이 할애되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에서는 제5차 교과서에서 드러난 조선 후기 사상사 서술 구도가 그대로 사용되면서 내용면에서 약간의 증감이 있었다. 실학에 대한 내용을 이전처럼 '실학 사상의 발달'이 아니라 '사회 개혁론의 대두'라는 소단원에 배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²⁹⁾ 사회개혁론으로서 실학의 성격을 강조하려 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단원 구성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전까지 시대순으로 단원을 구성하였던 반면, 제7차 교육과정부터는 한국사 교과서의 단원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구성하였다. 이는 교육과정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 저학년에서 학습한 인물사·생활사·사건사를 토대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분류사 중심의 역사를 심화 학습하도록 한 것이며, 우리 민족의 활동상을 분류사 체계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다. 사상사는 '민족문화의 발달' 단원에 포함되었으며, 조선 후기 사상사는 그 중에서도 '근대 태동기의 문화'로 분류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의 시기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근대 태동기'가 설정된 것이 눈에 띈다. 이전 제5차와 제6차에서도 조선 후기와 관련된 단원을 '근대 사회의 태동'으로 설명하기는 하였지만, 바로 이어서 '근대 사회의 발전'을 배치하고 개항기 역사를 서술하면서 조선 후기와 개항기의 차별성이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반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조

28) 위의 책, 54~55쪽.

29) 문교부, 『고등학교 국사』(하), 대한교과서, 1996, 53쪽.

선 후기를 ‘근대 태동기’, 개항기 이후를 ‘근대’로 분류한 것인데, 이는 조선 후기와 개항기를 엄격히 구분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오히려 조선 후기의 발전적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고려말 온건파 신진사대부로부터 사림의 연원을 찾았다는 점, 도덕성과 수신을 중요시하는 사림의 특징으로 인해 이들의 학문이 인간 심성에 대한 깊은 탐구로 이어졌다는 점, 17세기 이후 도덕성에 기반한 의리명분론을 강화하고 성리학을 절대화·교조화하는 경향이 드러났다는 점을 강조한 것을 볼 때,³⁰⁾ 성리학에 대한 설명은 기존 제6차까지의 기초를 유지·보완한 것이라고 파악된다. 실학에 관하여서도 ‘17, 18세기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의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학문과 사회개혁론’³¹⁾으로 정의하고,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으로 분류한 데에서,³¹⁾ 반성리학적 사회개혁론으로 실학의 성격을 설명하려는 기존의 서술 구도가 그대로 관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은 분야사 중심의 구성을 통해 조선시대 사상사를 보다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였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사상사를 문화에 포함시켜 설명하면서 사상사만의 단독 서술은 어려웠기 때문에 한계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을 통해 조선 후기 사상사를 바라보고자 하였던 구도는 그대로 통용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들과 큰 차별성을 찾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미군정기의 교과서에서부터 제1차~제7차 교육과정까지 쓰였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검토하여 보면,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설명하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초기 교과서들에서는 성리학이 공리공담적 성격으로 인해 정치나 사회의 발전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후기 교과서로 올수록 근대적 성격을 가진 실학에 대한 서술이 강화된 것과 동시에 조선 전기를 이끌어간 사상으로서 성리학의 역할에 대한 서술도 지속적으로 보강이 이루어진

30)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국사』, 두산동아, 2002, 291~292쪽.

31) 위의 책, 302~305쪽.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초기 교과서에서는 성리학에 대해서는 공리공담적 성격이 강조되었을 뿐이지만, 이후 교과서에서는 실학과의 대비 속에서 중세 조선 사회를 이끌었던 성리학의 역사적 성격이 도리어 강조되었던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을 거치며, 조선 후기에 들어서며 도덕주의 중심의 성리학이 한계를 노정하고, 반성리학적 사회개혁론으로서 실학이 등장하여, 조선 후기 사상계가 근대 사회로의 전환에 조응하고 있었다는 서술 구도가 정립되었다. 대체로 성리학은 조선 사회의 성립과 발전의 사상적 기반으로 긍정적 의의를 찾아볼 수 있지만, 결국 역사적 변동 속에서 도덕 중심의 학문이 한계를 드러내고 사회 지도 이념으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실학이 이를 대신하여 조선을 새로운 사회로 이끌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성리학은 일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사 교과서의 이러한 시각은 당시까지 학계에서의 주요 연구 동향에 의거한 것으로서, 한국 사회의 대중이 가지고 있던 성리학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실학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증폭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3. 2000년대 김정화 이후 한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제7차 교육과정까지의 국정교과서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은 학계에서 실학의 발전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사상사를 이해하였던 시각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런데 실학 연구가 발전하는 한편으로 실학 위주의 조선 후기 사상사 서술에 대한 반론도 꾸준히 제기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실학의 근대적 성격과 관련하여서 매우 이른 시기부터 반론이 제기되었고, 성리학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지면서 성리학과 실학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로 조선 후기 사상사를 바라보는 기존 시각 자체를 회의시키는 경

향이 발전하였던 것이며, 이 경향은 2000년대 이후로는 더욱 강화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반성리학적 성격의 근대적 학문으로서 조선 후기 실학의 실체를 부정하고, 근대적 역사 서술의 담론 체계로서의 실학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제출되고 있다. 이러한 학계에서의 동향은 결국 조선 후기 사상사 서술을 지탱해 왔던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7차 교육과정을 마지막으로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에서 검인정 체제로 전환되면서, 교과서의 조선 후기 사상사 서술에도 변화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2009교육과정과 2015교육과정의 특징을 조선시대사를 중심으로 개관하고, 2015교육과정에 근거하여 통과된 9종의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조선 후기 사상사 서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009교육과정의 역사과 교육과정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시행되었다. 단원 구성의 면에서 볼 때, 2009교육과정의 특징은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모두 포함하되 근현대사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점이다.³²⁾ 그러한 과정에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단원 구성에서도 변화가 계획되었던 바 있다. 이전 제7차 교육과정까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분리되어 각각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되었던 반면,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이라는 하나의 영역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양난 조선 후기 사회를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이라는 별도의 단원으로 구성하여 개항 이전 한국 사회의 역동적 변화상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지만,³³⁾ 이러한 구성에서는 전근대사에 관한 교육이 상당히 소략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전과 같이 고려와 조선을 분리하여 단원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귀결되었지만,³⁴⁾ 조선 후기에 관한 내용이 ‘근대대동기’ 등으로 별도 설정되었던 이전 교육과정과는 달리,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단원에 모두 포함되면서 조선시대사 서술 비중이 줄어들었다고 하겠다. 결국 전근대사의 비중이 축소되는 전체적인 경향 속에서 조선시대에 대한 서술도 이전에 비해 축약될 수밖에 없었다.

32)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사회(역사)』, 2010, 75쪽.

33) 위의 자료, 79-80쪽.

34)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사』,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 9쪽8

조선 후기 사상사 서술과 관련하여서는 양란 이후 거대한 정치·사회·경제적 변동으로 접어들면서 조선 후기 실학 사상으로 대표되는 근대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이 등장하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서술의 축약에도 불구하고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에서 조선 후기 사상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5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결과적으로 2009교육과정에서 드러났던 전근대사 비중 축소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다. 애초 2015교육과정은 전근대사를 선사, 고대, 고려, 조선의 4개 대주제로 구분하여 서술하기로 하였고, 각 대주제는 3~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었다.³⁵⁾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거치면서 2017년 국정화 방침은 폐기되었고, 2018년의 교육과정의 일부 개정을 거쳤다. 개정된 2015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전근대사 비중이 대폭 줄어든 것이 특징이다.

2009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사 비중이 축소되면서도 고대, 고려, 조선을 3개 단원으로 분리하여 서술하였으나, 2015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사 관련 내용은 1개의 대주제로 대폭 축소되었다. 1개 대주제 하에서 각 시대별로 2개의 소주제가 할당되었고, 조선시대 관련 내용은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와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라는 소주제 하에서 서술되었다.³⁶⁾ 이는 중학교 - 고등학교 역사 교육을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보고 계열화한 것과 연계된 것으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전근대사 위주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근현대 위주로 구성한 것이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양란을 기점으로 조선시대의 단원을 나누어 설명하였던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³⁷⁾

35) 교육부, 「한국사」,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142쪽.

36) 교육부, 「한국사」,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4], 142쪽.

37) 2015교육과정(2018 개정)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조선시대사 단원구성은 다음과 같다.

조선의 성립과 발전	통치 체제와 대외 관계	조선 사회의 변동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사립 세력과 정치 변화		사회 변화와 농민의 붕기
	문화의 발달과 사회 변화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
	왜란·호란의 발발과 영향		생활과 문화의 새로운 양상

[표1] 2009교육과정과 2015교육과정의 고등학교 한국사 조선시대사 단원 비교

2009교육과정 (2010 개정)		2009교육과정 (2012 개정)		2015교육과정		2015교육과정 (2018 개정)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건국과 통치 체제 정비 과정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조선의 건국과 유교적 통치 체제 정비, 국제관계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
	민족 문화의 발달과 사람 문화의 발전		조선의 신분제와 양반 문화		왜란과 호란		
	양난의 전개와 국내외에 끼친 영향		조선의 대외 관계와 양난의 대내외적 영향		정치 운영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동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	통치 체제의 개편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과 제도 개편		사상과 문화의 변화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적 변동					
	19세기 정치 질서의 문란과 사회 동요	조선 후기 사회 개혁론의 대두					
	서구 열강의 접근과 조선의 대응	서민 문화의 전개와 영향					

2015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전근대사 서술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조선시대사와 관련하여서는 2개 소주제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였고, 소주제별 학습요소는 [표2]와 같다. 조선시대의 사상과 관련된 주요 학습요소로는 ‘복벌론과 북학론’ 정도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간의 교과서에서 성리학을 신봉하고 조선 사회에 적용하려 한 주체로는 사림이 꼽혀왔는데, 사림과 관련한 학습요소로는 ‘향촌 지배 체제가 있다. 또한 이전까지 실학 사상 등장의 사회적 배경으로 꼽혀 왔던 조선 후기의 사회적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농민층 분화’, ‘농민 봉기’ 등의 학습요소가 주목된다. 그러나 ‘성리

학'이나 '실학'과 같은 사상사의 주요 설명의 주요 구도는 학습 요소에서 제외되었다.

[표2] 2015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조선시대사 학습요소

소주제	학습 요소
조선 시대 세계관의 변화	사대교린, 정치 운영의 변화, 왜란과 호란, 북벌론과 북학론
양반 신분제 사회와 상품 화폐 경제	양천제와 4신분제, 향촌 지배 체제, 농업, 상공업, 농민층 분화, 농민 봉기

조선 후기 사상사 서술과 관련하여 2015교육과정(2018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 부분의 특징을 꼽아보자면,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닐지라도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다소 약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2009교육과정에서 조선 후기 근대 사회를 향한 새로운 움직임에 강조하면서 사상적으로 실학의 사회개혁론을 꼽았던 것과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으며,³⁸⁾ 개정 전 2015교육과정에서 조선 후기 '사상과 문화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실학', '북학', '서학' 등의 학습요소를 강조하도록 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³⁹⁾ 개정을 거치며 2015교육과정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약화된 상황은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도 반영되었다.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는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과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을 서술하도록 하면서도 학습 요소에서는 '실학'이 제외되고 '연행사', '통신사', '서학', '회화' 등이 강조되었다.⁴⁰⁾

검정교과서의 특성상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서의 규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상대적으로 집필자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습자의 전체적인 학습량을 고려할 때에 주요 학습요소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2015교육과정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강조되지 않은 것은 학계에서의

38) 교육과학기술부, 앞의 글,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 [별책 7], 2012, 100쪽.

39) 교육부, 앞의 글,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7], 2015, 147쪽.

40) 교육부, 「역사」, 『중학교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3], 2018, 133쪽.

최신 경향을 반영하여 이 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대적 자율성이 확보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리학과 실학에 대한 개념 학습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양가적 상황은 실제 2015교육 과정에 의하여 현재 통용되고 있는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잘 드러났다.

[표3] 2015교육과정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성리학 및 실학 관련 서술

출판사	성리학 및 실학 관련 서술	
	주제	내용
금성	양 난 이후 세계관의 변화 - 화이론적 세계관의 동요	조선은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시하는 나라였다. 대외 관계에서 명분론은 명을 중심으로 중화와 오랑캐를 구분하는 화이론으로 자리 잡았다.
	양 난 이후 세계관의 변화 - 북벌론과 북학론	화이론적 세계관의 한계를 자각한 이들도 있었다. 이들은 18세기경 청의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북학론을 제기하였다.
	양 난 이후 세계관의 변화 - 북벌론과 북학론	이처럼 병자호란 이후의 조선 사회는 성리학과 화이론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변화에 직면하였다. 이에 성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을 모색하여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들이 등장하였다. 조선 후기에 나타난 이들의 학문 동향을 실학이라고 부른다. 실학자들의 관심은 농민 생활 안정, 상공업 진흥, 국학 진흥, 우주관의 재정립 등 다방면에 걸쳐 있었다.
동아	조선의 대외관계 변화 - 북벌론과 북학론이 대두하다	청이 중국을 장악한 이후에도 조선의 지식인들은 여전히 청을 오랑캐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가서 청의 발전된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은 일부 실학자와 지식인은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 조선을 발전시키자는 북학론을 제기하였다. 특히 박제가는 무역선을 과건하여 청에서 이뤄지는 세계 무역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북학파의 주장은 19세기 후반 개화사상으로 계승되었다.
리베르	왜란·호란과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 - 북벌론과 북학론이 나타난다	한편 17세기 말 청은 내부 반란을 진압한 후 국력이 크게 성장하였다. 조선은 청의 수도인 연경(베이징)에 연행사를 파견하고 물자도 교역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의 발달한 문물을 수용하자는 북학론이 대두하였다.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실학자들은 상공업을 발전시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지전설을 제시하였고, 박지원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열하일기”에 담았으며, 박제가는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주장하고 검약보다는 소비를 권장하였다.
미래엔	유교 정치 이념에 바탕을 둔 조선의 통치체제는 어떠한가? - 조선의 건국과 새로운 통치 이념의 확립	그리고 성리학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삼아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유교적 민본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문물제도를 정비하였다. 아울러 중화를 존중하고 오랑캐를 배척하는 화이론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명 중심의 국제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다.

	<p>공론에 바탕을 둔 정치 운영은 어떠하였을까? - 새로운 정치 세력, 사립의 성장</p>	<p>사람은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출신 지역이 다양하고 정치적·학문적 성향도 차이가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붕당을 형성하였다.</p>
	<p>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에 조선은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 대외 관계의 변화</p>	<p>이 무렵 청은 국력이 더욱 신장되고 서양 문물까지 받아들여 문화가 크게 융성하였다. 18세기에 일부 실학자는 청을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앞선 문물을 적극 수용해 국가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북학론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 북벌론은 점차 사라져 갔다.</p>
	<p>이야기 더하기 - 조선 후기 사회개혁론 실학</p>	<p>성리학이 현실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더는 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학자들은 국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해 사회 모순을 해결하고 부국안민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이를 실학이라고 부른다. 실학은 크게 토지 제도 개혁을 중시하는 방향과 상공업 진흥을 적극 주장하는 방향에서 전개되었다.</p>
<p>비상</p>	<p>사람이 성장하고 공론 정치가 이루어지다 - 붕당 정치와 공론의 형성</p>	<p>공론: 성리학에 부합하는 공정한 견해로, 붕당 내부의 토론을 통해 형성된 여론을 뜻한다.</p>
	<p>새로운 사상이 유행하다 - 서학의 전래와 실학의 발달</p>	<p>조선의 지배층은 성리학 이론에 치우쳐 당시 사회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실증적인 연구 방법으로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학이 제기되었다. (이후 농업 중심 개혁론, 상공업 중심 개혁론, 국학 발달에 관하여 서술)</p>
<p>서마스</p>	<p>조선의 대외 관계와 전쟁 - 북벌론에서 북학론으로 변화해 가다</p>	<p>18세기에 들어 일부 실학자 사이에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청의 발달된 문물을 배우고 수용해야 한다는 북학론이 등장하였다. 이러 한 가운데 북벌론은 점차 힘을 잃어갔다.</p>
	<p>조선 후기 정치와 세계관의 변화 - 개혁적인 경향의 실학이 등장하다</p>	<p>17세기 후반 지식인 가운데 일부는 성리학을 비판하며,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문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현실 비판적이고 개혁적이며 새로운 경향의 학문과 사상을 실학이라 한다. 18세기 이후 실학은 토지 제도나 상공업 진흥을 추구하는 사회 개혁론으로 이어졌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의 실학자들은 농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토지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고,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북학파로도 불리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 실학자는 상공업 발달이 국가 부강의 근원이라고 보았다. 북학파는 청의 발달한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며, 양반도 상업에 종사할 것과 유통 경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실학은 청의 고증학과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특히 청의 고증학을 수용한 '실사구시' 학풍은 역사와 지리에 관한 국학 연구로도 이어졌다. 그 결과 종래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려는 자주성을 강조한 역사서와 지리서가 편찬되고, 보다 정밀한 지도가 만들어졌다.</p>
	<p>조선 후기 정치와 세계관의 변화</p>	<p>- 지역사회탐방: 실학자 정약용을 만나다 - 주계탐구: 실학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p>

	<p>조선의 신분제와 향촌 지배 체제 -역사산책 : 조선 시대의 가족 제도와 여성의 지위는 고려 시대와 어떻게 다를까?</p>	<p>특히 17세기 이후 성리학의 생활 규범이 정착하면서 부계 중심의 가족 제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제사는 반드시 큰아들이 지내야 한다는 의식이 확산되었고, 재산 상속에서도 큰아들이 우대를 받았다. 그리하여 큰아들 이외의 아들이나 딸들은 제사나 재산 상속에서 점차 그 권리를 잃어 갔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아들 없는 집안에서는 일반적으로 양자를 들었다. 또한, 조선 후기에 성리학 윤리가 강조되면서 가족 내에서 여성의 권리가 약화되었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점차 낮아졌다.</p>
<p>지학</p>	<p>정치 운영의 변화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다</p>	<p>조선은 한양으로 수도를 정하고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내세웠다.</p>
	<p>정치 운영의 변화 -사람이 정국을 주도하다</p>	<p>사람은 선조 때부터 중앙 정치에 다시 등장하여 정국을 주도하였다. 이황, 이이 등과 같은 뛰어난 학자들이 배출되어 성리학이 발달하였고, 사람이 앞장서서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p>
	<p>북벌론과 북학론 -실학사상이 나타난다</p>	<p>양 난을 겪은 조선에서는 어려운 사회 질서를 극복하고 국가 이념을 바로 세우고자 주자 성리학을 더욱 강조하였다. 그러나 주자 성리학은 주자 이외의 성리학을 배척하고 공리공론만 일삼아 나라의 어려움에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에 유교 경전에 대한 주자의 해석만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연구하여 사회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났다. 자주적이고 본질적인 깨달음을 중시한 이들의 학풍을 ‘실학’이라 부른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 실학자들은 정치 제도, 토지 제도, 신분 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p>
<p>북벌론과 북학론 -북학사상이 대두하다</p>	<p>실학의 한 흐름인 북학은 청을 오랑캐의 나라라고 무시하기보다는 발달한 문화와 기술을 배워 조선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으로, 북학을 주장한 학자들을 ‘북학파’라 하였다.</p>	
<p>조선의 건국과 정치 운영의 변화 -유교 국가 조선이 들어서다</p>		<p>조선 건국을 주도한 신진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새 왕조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여러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였다.</p>
<p>국제 질서의 변동과 조선의 대외 관계 -북벌 운동을 추진하다</p>		<p>서인 세력은 북벌론을 내세우며 정권을 유지하였다. 이는 명의 문화를 계승한 문화 민족이라는 소중화주의를 바탕으로 오랑캐로부터 당한 수치를 씻고 나아가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 들어 실학자들이 중심으로 청의 발전된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론이 나타났다.</p>
<p>세계관의 변화 -성리학이 발전하다</p>		<p>신진 사대부들이 조선 왕조를 열면서 성리학은 조선 왕조의 지배 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집현전 등의 관료 학자들은 제도와 문물 정비를 위해 성리학 이외에도 훈고학, 도교, 풍수지리설 등 다양한 사상을 폭넓게 수용하였다. 한편, 길재의 학풍을 계승한 사림은 성리학을 절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며 다른 학문과 사상을 배척하고 대의명분을 중시하였다. 사림의 성장과 더불어 성리학의 사상적 발전이 이루어져 이기론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심성 등에 대한 사상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황과 이이 등은 조선의 성리학을 한 단계</p>

<p>천제</p>		<p>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이황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 심성을 중시하였으며, 이는 현실 개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성리학은 생활 윤리적 측면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사림은 『소학』, 『주자가례』 등을 보급하여 성리학적 예절을 보급하고 실천하기 위해 힘썼다. 또 선배 유학자를 기리며 후배를 교육하는 서원을 건립하였다. 이에 따라 향촌 사회에서 성리학의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향촌 사회의 주민들이 지켜야 할 자치 규약인 향약이 보급되면서 향촌 사회에 유교 문화가 확대되고 백성에 대한 사림의 지배력은 매우 커졌다.</p>
	<p>세계관의 변화 -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을 모색하다</p>	<p>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 사회는 신분 질서 변화, 수취체제 동요 등 사회·경제적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성리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지배층은 양반 중심의 사회 질서 유지에 대해 성리학에 집착하며 다른 사상이나 학문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양명학이나 고증학, 서양 학문 등 새로운 사상이 끊임없이 유입되고 새로운 학문을 모색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부 학자들은 현실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실 비판적, 개혁적 학문 활동을 펼쳤는데, 이를 실학이라고 한다.</p>
	<p>세계관의 변화 - 실학자들, 사회 개혁론을 외치다</p>	<p>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은 농민 생활 안정을 위한 토지 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들은 토지 소유의 불균등을 해결하여 농민의 삶을 안정시킨 후 이를 바탕으로 국방, 재정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다.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은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이라는 현실에 주목하여 부국안민을 위해서는 상공업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들은 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달된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일 것을 주장하여 북학파로 불렸다. 실학자들의 개혁 사상은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학자들은 정치적 실권과 다소 거리가 있는 지식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개혁 방안은 현실에 반영되지는 못하였다.</p>
<p>세계관의 변화 -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다</p>	<p>실학자들에 의한 역사, 지리, 언어 등 국학 연구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병자호란 이후 강화된 조선의 소중화주의도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였다.</p>	
<p>해남</p>	<p>조선, 유교적 이상 국가를 추구하다 - 주제열기: 정도전</p>	<p>조선의 설계자로 평가받는 정도전은 『경국대전』의 바탕이 된 『조선경국전』을 저술했다. 정도전 등 조선 건국에 참여한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의 정치 이념인 왕도 정치와 민본 정치를 중시하였다.</p>
	<p>북벌에서 북학으로 세계관이 변화하다 - 전란 후 유교 교육을 강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p>	<p>성리학을 지배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삼강오륜을 강조하며 유교 윤리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삼강행실도』를 간행하고 『주자가례』에 따른 의례를 지키도록 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왕실과 양반 사대부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유교적 사회 질서가 심하게 흔들렸다. 이에 정부는 전란으로 인한 상처와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양반 중심의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다시 세우고자 하였다.</p>

	정부는 성리학에서 중시하는 충과 효, 인과 예를 강조하며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유교 윤리서인 『소학』뿐만 아니라 『동몽선습』 등이 보급되었다.
북벌에서 북학으로 세계관이 변화하다 - 실학자들이 강조한 사회 개혁의 내용은 무엇일까?	양 난 이후 지배층은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여 사회를 안정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 사회·경제적 변화를 수용하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이에 심화된 사회 모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실학이 등장하였다. 실학자들은 농민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았다. 이에 실학자들은 자영농을 육성할 수 있는 토지 제도의 개혁에 관심을 가졌다.
북벌에서 북학으로 세계관이 변화하다 - 실학자들이 강조한 사회 개혁의 내용은 무엇일까?	한편 연행사로 베이징에 다녀온 사람들에 의해 청과 서양의 문물이 소개되자 청의 문물을 배우자는 북학론이 대두되었다. 이들은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있는 조선의 현실에 주목하였다.

9종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성리학과 실학 관련 서술을 검토해 보았을 때, 크게 세 경향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 먼저, 북벌론과 북학론이라는 세계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성리학과 실학을 제한적으로 언급하는 경향이다. 여기에는 금성, 동아, 리베르가 속하는데, 그동안의 교과서에서 주로 실학의 사회개혁론적 성격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던 것에 비해 북학이라는 새로운 경향을 설명하기 위하여 실학 개념이 언급된 정도라는 특징을 보인다. 이 중 금성에서는 제한적으로나마 사회 개혁의 움직임과 실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성리학과 실학에 대한 서술이 매우 적어서 대립 구도가 명확하게 등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경향에서도 조선 후기의 새로운 세계관과 실학을 연결시키면서 실학의 개혁적 성격이 어느 정도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개혁론으로서 실학의 성격을 분명하게 제시하면서, 조선 왕조의 체제 정비와 운영에 영향을 주었던 체제 이념으로서의 성리학과 대비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다. 미래엔, 비상, 씨마스, 지학, 해냄이 여기에 속한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래엔에서는 통치 이념으로서의 성리학이 조선의 체제 및 정치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조선 후기의 내외 변동 속에서 성리학을 대신하여 사회 개혁론으로서 실학이 등장하였음을 밝혔다. 비상에서는 성리학과 공론 정치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여 조선의 정치 운영과 성리학의 관계를 밝히고, 조선 후기 지배층들이 성리학 이념에만 치우쳐 사회 변동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가운데,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 사회 모순을 해결하려는 실학이 등장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농업 중심 개혁론, 상공업 중심 개혁론, 국학의 발달이라는 실학의 세 갈래를 언급하였다.

씨마스에서는 17세기 후반 반성리학적 사회개혁론으로서 실학이 등장하였음을 밝히고, 실학의 사회개혁론과 주요 학자들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또한 조선에서 여성의 지위가 고려시대에 비해서 낮아진 원인으로 성리학적 생활 규범과 윤리의 확산을 지적하였다. 지학에서는 성리학이 조선의 통치 이념이었으며 선조 대부터 중앙 정치를 주도한 사림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양반 이후 주자 성리학은 교조화되고 공리공담을 일삼아 국가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던 반면, 주자학으로부터 탈피하여 사회개혁론으로 나아간 실학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해남은 유교 국가를 추구한 조선이 성리학을 정치 이념으로 하였다라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전란 이후 조선의 지배층들이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강화하면서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반면, 사회 모순에 대한 현실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실학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서술하였다. 분량에서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러한 경향에서는 조선의 체제와 성리학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으나,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고 실학이라는 사회개혁론의 성격을 가진 새로운 학문이 등장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마지막은 사상사와 관련된 부분을 따로 마련하여 성리학에서 실학으로의 변화를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한 경향이다. 천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유일하게 사상사 서술에 독립적으로 지면을 할애하였다. 천재에서는 '세계관의 변화'를 사상과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 보다 넓게 해석하고, 여기에서 성리학과 실학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성리학의 발전과 역할을 상세하게 소개하였으며,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속에서 성리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자 개혁적 학문으로서 실학이 등장하였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주요 실학자들과 개혁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검정 체제에 따라 2015교육과정과 내용 요소 등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성리학과 실학에 대해 비교적 자율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성은 성리학과 실학에 대한 최근 학계에서의 연구 성과를 반영하여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기보다는, 검정 체제에 따른 편익적 취사선택의 결과로 파악된다. 성리학과 실학에 대해 설명한 교과서들에서는 대부분 기존 통설에서의 설명 구도, 즉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로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의 통치 체제 정비와 운영에 큰 역할을 하였던 성리학이 후기 사회 변동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자, 실학이라는 새로운 사회개혁론이 등장하였다는 서술 구도가 여전히 통용되고 있다. 성리학과 실학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은 교과서들에서도 실학의 개혁적 성격이 부각되고 있는 것을 통해서도 이러한 측면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결국 2015교육과정에서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지만, 현행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를 통해 조선 후기 사상사에 대해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사 교과서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를 통해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설명하는 방식이 매우 오래전부터 정착되었고,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설명의 공백이 채워지며 강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대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화 이후에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역사 서술이 기대됨에 따라, 조선 후기 사상사를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화 또한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사용되는 교과서들의 내용을 보면,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여전히 설명틀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맺음말

이 논문에서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를

통해 조선 후기 사상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군정기의 교과서에서부터 제1차~제7차 교육과정까지 쓰였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를 통해 설명하려는 인식은 미군정기 교과서에서부터 발견되며, 제7차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국사교본』과 제1차~제2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에서는 성리학의 공리공담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 부정적 영향을 서술하면서, 조선 후기의 실학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서술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에서부터는 조선의 통치 체제 및 통치 집단과 성리학의 관계가 보다 집중적으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서술을 통해서 조선 전기에는 성리학이 일부 긍정적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조선 후기 사회 변동에 대처하지 못하고 통치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에 근거해서 조선 사회가 근대로 나아갈 가능성을 갖게 되었다는 서사가 완성되었다. 이 서사는 제7차 교육과정까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화 이후인 2009교육과정과 2015교육과정에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통합하여 서술하면서, 전근대사의 서술 비중이 감소하였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에 따라 조선시대 및 조선 후기 사상사에 대한 서술도 지속적으로 축약되었다. 2015교육과정(2018 개정)에서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전근대사 서술은 1개 대주제로 축소되었다. 조선 후기 사상사와 관련한 내용이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에서 줄어들게 되면서,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에 대해서도 집필자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보장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실제 2015교육과정에 의거하여 현재 통용되는 9종의 교과서를 분석하여 보면,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를 벗어나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서술하는 교과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결론을 대신하여, 검정화 이후에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로부터의 탈피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소략하게나마 제시해보고자 한다. 기존 구도를 극복한 교과서 서술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 학계에서 성리학과 실학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이전에 비해 실학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문제 제기의 결과 하나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히려 다양한 실학 개념이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다.⁴¹⁾ 실학의 연구사를 검토하는 논자들은 실학 개념이 통일되지 아니한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지만, 실제로 실학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실학의 의미와 성격을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는 지적은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⁴²⁾ 이는 곧 교과서에서 통용되는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를 반드시 대체해야만 하는 정당성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의미하며, 혹 대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교과서 서술에 적합한 새로운 서사를 구축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한국 역사학계의 실학에 관한 논의가 마냥 산발적으로만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90년대 이후 실학 연구 일각에서는 17~19세기 동아시아 사회의 변동이 가지는 공통적 기반으로 유교에 주목하고, 서구의 근대화 과정과는 다른 ‘또다른 근대성’에 주목한 연구 경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⁴³⁾ 하지만 교과서의 시각을 다채롭게 하기 위해서는 조선 후기 사상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연구자들의 논의가 보다 풍부하면서도 정교하게 발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학설의 해체만이 아닌 새로운 서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화가 기대와는 달리 실제로는 다양한 역사 관점의 확보로 이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사 교과서의 조선 후기 신분제 관련 내용의 체제와 내용을 고찰한 연구에서는 ‘다원적 관점에 입각한 다

41) 실학의 개념 문제와 그에 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서는 정구복, 「조선 후기 성리학 이념과 실학의 제 문제」, 『한국사학사학보』 40, 2019, 20~24쪽을 참고. 정구복 교수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를 참고하여 실학을 역사적 용어로서 “조선 후기에 일어난 새로운 학문 내지 새로운 학풍”이라고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42) 정호훈, 앞의 논문, 104쪽.

43) ‘유교적 근대성과 관련한 실학 연구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봉규, 「실학 연구 회고와 전망 - 9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7, 2017, 115~118쪽.

양한 교과서 제작이라는 검정제 도입의 취지가 실제 검정 교과서에서는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그러한 원인 중 특히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문제로는 교육과정을 통한 교과서 내용의 획일화, 교과서 집필자들 스스로 이전 국정 교과서를 典範으로 인식하는 점 등을 꼽았다.⁴⁴⁾

검정교과서에서 도리어 관점이 획일화된 문제는 조선 후기 사상사 관련 서술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검정화 이후 실제 교육과정에서는 '성리학과 실학의 대립 구도'가 약화된 듯하면서도 완전히 탈피하지는 못하였고, 교육과정에서 세세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검정 교과서들은 기존 구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선 후기 사상사를 서술하였다. 최근 역사교육에서 '다원적 관점'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⁴⁵⁾ 기존 대립 구도에 대한 학계에서의 다양한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다원적 관점'에서 한국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점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44) 洪仙伊, 「한국사 교과서」 조선 후기 신분제 내용의 劃一과 固着, 『역사교육』 137, 2016.

45) 김한중,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8, 2008; 방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들은 역사학습의 '다원적 관점(multiperspectivity)'을 어떻게 담았는가?」, 『역사교육논집』 74, 2020 등.

■ 참고문헌

- 유봉학, 『燕巖一派 北學思想 研究』, 일지사, 1995
- 정옥자,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연구』, 일지사, 1998
- 정창렬, 『정창렬 저작집: 민중의 성장과 실학』, 선인, 2014
- 최완수 『眞景時代』 1·2, 돌베개, 1998
- 洪以燮, 『朝鮮科學史』, 정음사, 1946
- 강승호,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실학' 서술」, 『역사와 실학』 54, 2014
- 김한중, 「다원적 관점의 역사이해와 역사교육」, 『역사교육연구』 8, 2008
- 노관범, 「근대 초기 실학의 존재론 - 실학 인식의 방향 전환을 위하여」, 『역사비평』 122, 2018
- _____, 「한국 통사로 보는 '실학'의 지식사 시론」, 『한국문화』 88, 2019
- 박진동,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살펴보는 실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 『역사와 교육』 35, 2022
- 방대광, 「중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실학' 서술」, 『역사와 실학』 54, 2014
- 방지원, 「2015 개정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들은 역사학습의 '다원적 관점(multiperspectivity)'을 어떻게 담았는가?」, 『역사교육논집』 74, 2020
- 서인원, 「동아시아 교과서의 '실학' 서술 분석」, 『역사와 실학』 55, 2014
- _____, 「제7차 교육과정기~2018 개정 교육과정기 한국사 교과서의 실학 서술 - 고등학교 한국사를 중심으로 -」, 『역사와 교육』 35, 2022
- 송치중, 「교수요목기-제2차 교육과정기 한국사 교과서 실학 서술」, 『역사와 교육』 35, 2022
- 신항수, 「한국 실학과 미래 세대 교육」, 『역사와 교육』 35, 2022
- 이봉규, 「실학 연구 회고와 전망 - 90년대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47, 2017,
- 정구복, 「조선후기 성리학 이념과 실학의 제 문제」, 『한국사학사학보』 40, 2019
- 정호훈, 「조선후기 실학 연구의 추이와 성과-해방 후 한국에서의 실학 연구, 방법과 문제의식」, 『한국사연구』 184, 2019
- 조건, 「제3-6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의 실학 서술과 특징」, 『역사와 교육』 35, 2022
- 千寬宇, 「礪溪 柳馨遠 研究-實學 發生에서 본 李朝 社會의 一斷面-」, 『歷史學報』 2·3, 1952·1953
- 韓治勳, 「李朝 實學의 개념에 대하여」, 『震檀學報』 19, 1958.
- 허태용, 「성리학 대 실학이라는 사상사 구도의 기원과 전개」, 『한국사상사학』 67, 2021
- 洪仙伊, 「한국사 교과서' 조선 후기 신분제 내용의 劃一과 固着」, 『역사교육』 137, 2016,
- 황은희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실학' 서술」, 『역사와 실학』 54, 2014

Analyze of 'Confrontational Narrative of Neo-Confucianism and Silhak'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since Liberation in 1945

Na Jonghyun*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nfrontational Narrative of Neo-Confucianism and Silhak' has evolved in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Firstly, the study analyzes high school Korean history textbooks from the Liberation period to the early 2000s. The analysis reveals a continuous strengthening of the presentation of the ideological history of late Joseon through the 'Confrontational Narrative of Neo-Confucianism and Silhak.'

The textbooks that have been part of the certified textbook system since 2009 are characterized by the integration of pre-modern and modern history, resulting in a reduced proportion of pre-modern history. Consequently, the narration of the late Joseon historical period has been consistently abbreviated. Among the nine textbooks currently in use, it is challenging to locate a textbook that discusses the ideological history of late Joseon beyond the scope of the 'Confrontational Narrative of Neo-Confucianism and Silhak.'

This situa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on the late Joseon history and various constraints within the field of history education. Firstly, the academic discourse on Neo-Confucianism and Silhak is not extensive enough to replace the existing textbook structure. Secondly, achieving a diversified range of perspectives within the current textbook system proves to be challenging. To foster a broader spectrum of viewpoints concerning the ideological history of late Joseon within Korean history textbooks, in-depth

*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BK Assistant Professor

discussions within academia and history education are imperative.

Key words: Ideological history, Neo-confucianism, Silhak(實學), History of Late Joseon, Textbooks